

강의 정리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16-18

강사: 김기호 목사 (김해남포교회)

일시·장소: 2026. 7. 18(토) 오전 7시 · 김해남포교회 세미나실 — CBMC 김해한마음지회 상반기 마무리 감사예배

정리: 엘림G선교회 (강의 녹음 기반)

한 문장 요약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세 명령은 율법으로 대하면 짓누르는 돌덩이지만, **관계로 대하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삶**이 됩니다 — 그 관계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 문제 제기 — 세 개의 돌덩이

방학을 앞두고 어떤 영성과 경건으로 이 기간을 살아갈지 고민할 때, 이 말씀보다 좋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살전 5:16-18은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명제 자체보다 앞에 붙은 부사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냥 기뻐하기도 쉽지 않은데 "항상", 기도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쉬지 말고", 감사도 어려운데 "범사에(원어로 '모든 것에')". 이 부사들이 문장 전체를 찍어 누르는 돌덩이처럼 다가옵니다. 설교하는 목사 자신도 잘 되지 않는 부담이었습니다.

2. 발상의 전환 — 카페에서 만난 '춘자씨의 친구'

시찰회 모임 후 목사님들과 카페에 갔다가, 뒷자리 한 여성분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무려 **두 시간** 반을 쉬 없이, 얼마나 재미있게 대화하는지 끊어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웃 안부에서 시작해 나라 걱정(투표 이야기), 동남아 여행, 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남편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 긴 통화의 마지막 멘트가 압권이었습니다.

"춘자야,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두 시간 반을 이야기하고도 "자세한 얘기"가 남아 있다는 것 — 그 순간 이 본문이 풀렸습니다. **관계만 좋으면 시간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대화도, 끝나지 않습니다. 답은 관계였습니다.

3. 기도도, 감사도 — 결국 관계

기도: 우리는 기도를 자주 시간(새벽에, 잠들기 전에)과 장소(집에서는 안 되고 교회에 와야)에 묶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시간·장소로 설명하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 **관계**입니다. 주님과 의 관계가 춘자씨 친구의 관계만큼 돈독하다면 두세 시간 기도도 순식간일 텐데, 우리는 20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며,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린 신호입니다.

감사: 33년 목회의 경험도 같은 답을 줍니다. 관계가 좋으면 설교를 대충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멘 하며,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칩니다. 관계가 서먹해지면 은혜가 반감되고 감사라는 단어가 먼저 쏙 들어갑니다.

가장 먼 여행 예화: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지구 반대편(남미 아르헨티나)이 아닙니다. 관계가 불편한 원수와 함께 라면 일본 가는 두 시간 비행이 24시간처럼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남미 가는 18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입니다.**

4. 열쇠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명제를 각각 설교해 보고, 부사(항상·쉬지 말고·범사에)를 원어로 풀어 설교도 해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딱 싸여 있는 말씀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명제가 가능한 이유는 관계에 있고, 그 관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첫 번째 증인 —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의 보호막을 두른 초인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 아파하셨고, 분노하셨고, 친구의 죽음에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인간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 안에서 세 명제를 완수하셨습니다.

- **항상 기뻐하심** —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양식으로 삼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조차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 **쉬지 않고 기도하심** — 전지전능하신 분이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데도 제자를 부르시기 전, 오병이어 전, 물 위를 걸으시기 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모범**입니다.
- **범사에 감사하심** —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세 오누이의 섬김을 받으며 감사의 축사를 올리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남자만 오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이스라엘의 완전수 12)가 남았고, 벧새다 건너편 이방 땅의 칠병이어에서는 사천 명이 먹고 일곱 광주리(이방인이 사랑하는 완전수 7)가 남았습니다 — 두 기적 모두 그 시작은 작은 도시락 앞에서 하늘을 향해 올린 **감사의 축사**였습니다. 인류를 위한 죽음 앞에서도 감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세 가지에 승리하시고 그 모범을 보이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증인 —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로마의 신들과 황제 숭배가 가득한 이방 도시에서,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갓 개척된 초신자 교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장사는 망하고, 이웃의 존중을 잃고, 내일 순교해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혼란까지 겹쳐 바울에게 급히 답을 구했고, 그 답장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증언하듯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파문과 유리방향 속에서도 철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그 모범을 따라 산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 가능하다고.

5. 결론 — 졸업이 없는 세 가지

세상 모든 것에는 수료와 졸업이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 서리집사, 안수집사와 권사, 장로 —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진행형(-ing)으로 이어져야 할 우리의 과업입니다. 혹서기와 방학으로 몸은 조금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름이니깐요. 그러나 이 세 가지만큼은 중단 없이 — 어디에 계시든 기쁨·감사·기도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MAT 정리

Scripture — 살전 5:16-18. 세 개의 현재 명령형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한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Message — 기쁨·기도·감사는 율법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두 시간 반의 통화도 짧고, 관계가 나쁘면 두 시간 비행도 24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 명제는 무거운 돌덩이가 아니라 저절로 흐르는 삶이 됩니다.

Application — 나의 기도가 20분을 넘기 어렵다면 시간·장소를 바꿀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방학·혹서기에도 기쁨·기도·감사만은 중단 없이. 일터에서 이 세 가지를 살아냄으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십시오.

Transformation — 인간 예수의 모범과 박해받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증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졸업 없는 세 가지 과업을 살아내는 CBMC가 됩시다.

암송 한 문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나눔 질문

1. 나의 기도는 '의무'입니까, '춘자씨와의 통화' 같은 관계입니까? 기도가 짧아진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지금 나에게 "24시간처럼 느껴지는 두 시간"의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을 시작하겠습니까?
3. 이번 방학 두 달 동안 중단하지 않을 나만의 기쁨·기도·감사 습관 하나를 정한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만남 · 좋은 연결 · 좋은 연합 | CBMC 김해한마음지회 · 엘림G선교회